

■ 10·21 건설대책 효과 한계 ... '失機' 논란 제기

# 택지 해약해도 업체는 한푼도 못 쥘다

## PF 자금, 고스란히 금융회사로 들어가

## 미분양 매입도 기존 분양자 반발 가능성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9조2천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공택지 해약 드물 듯=토지공사가 건설업체에 분양한 공공택지의 계약을 해제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 건설업체 A사의 고위 임원은 22일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해제를 하더라도 건설업체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상황이 따라서는 오히려 새로운 자금을 마련, 은행에 내야 할 판이다.

즉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살 때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손잡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이때 금융회사들은 적게는 땅값의 95%, 많게는 120%까지 대출을 해준다. 즉 1천억원의 공공택지를 살 경우에는 950억원에서 1천20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토지공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금융기관에서 받은 PF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문제는 토지공사 계약금(10%)을 떼 나머지만 돌려준다는 것.

◇투기지역 해제는 '실기'(?)=수도권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얼얼한 부동산 거래시장에 숨통을 터줄 가능성은 있지만 다소 때가 늦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의 기준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도 배제된다. 이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것이어서 돈 때문에 내집 마련을 못하고 있는 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얼얼한 주택수요를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분양 매입 때 분양자 반발 우려=정부는 건설업체 어려움의 최대원인인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까지 동원하기로 했다. 주택공사가 작년말부터 나서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보증까지 가세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보증이 사들일 규모는 1만가구 수준으로 주택공사가 올해까지 5천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2배에 이른다. 매입가격은 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감정가격 이하지만 증대주택

까지 사준다는 점에서는 주택공사와 차이가 있다.

주택보증이 미분양매입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주택보증 내부에서의 반발 기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다. 주택보증이 매입하는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이는 분양가의 70~80% 수준에 불과해 정상 가격에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체 투자의욕 살리기는 역부족=정부가 밝힌 대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받아들여 토지나 아파트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체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신규투자로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정부의 대책은 건설업체에 임시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18개 은행장들 지구 노력 결의문 발표

# 임원 연봉삭감·영업비용 절감 기존 내용 되풀이 '반성 없다'

국내 18개 은행의 수장들이 22일 정부의 지급보증과 유동성 지원에 대한 지구력으로 연봉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구력은 이미 개별 은행들이 발표한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인 데다 진정한 반성의 목소리도 담겨있지 않아 '속진 강령'이라는 지적이 많다.

◇은행내금융 지구력=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은행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삭감과 영업비용 절감 ▲내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금리부담 완화 등 세가지다. 이는 은행들이 대부분 시행하겠다고 이미 밝힌 내용이다.

우리금융은 하루 늦은 이날 그룹 및 계열사의 임원 급여를 10%를 삭감하고 내년 예산 동결과 임직원 업무 추진비 20%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임원 임금삭감을 포함한 좀 더 실효성있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완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없었다.

◇'등 떠밀려 억지로'=은행장들은 결의문에서 '깊은 반성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말했지만 무엇을 반성한다는 것인지 내용은 없었다.

은행장들은 회의에 앞서 오전 7시 30분 언론사들의 포토라인 앞에 섰지만 정작 결의문 발표 때는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자산경쟁에 치중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국내 은행들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더 많다.

KDI김현욱 연구원은 "은행들이 그동안 자산 불리기에 전념하는데 과도한 경쟁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금융위기 상황인 만큼 일단은 금융체계의 핵심인 은행을 지원하되 사후로 책임 소재를 가려 부실 분담 원칙을 세워서 철저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장 임금 삭감 등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中企 대출 연체율 급증

## 9월말 1.5%...부실 우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급증해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50%로 작년 9월말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97%로 1년새 0.08%포인트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도 1.30%로 0.18%포인트 올랐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0.31%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하락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0.08%포인트 떨어졌다. /연합뉴스



25일은 'CEO데이' ... 위기 극복하세요

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비즈니스맨은 어려운 경기상황에 처한 CEO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같은 캠페인을 펼쳤다. /연합뉴스

케이비 채널 비즈니스맨(Business&)은 오는 25일을 'CEO데이'로 정하고,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꽃말이 열정인 선인장을 직장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비즈니스맨은 어려운 경기상황에 처한 CEO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같은 캠페인을 펼쳤다. /연합뉴스

# 한국 음식점 美의 7배

## 부동산중개업 5.6배·이미용업 8.3배 달해 경쟁력 하락

### 韓銀 '세계형 서비스 산업' 보고서

음식점·수리업·부동산중개업·숙박업 등 세계형 서비스업의 사업체수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세계형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통계기관 자료를 이용해 세계형 서비스업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쟁강도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구 1천명당 사업체수를 보면 음식점업은 우리나라가 12.2개로 미국(1.8개)의 7배에 달했고 일본(5.7개)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았다. 가전·

시계·구두 등을 고치는 수리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사업체수는 1.9개로 미국(0.8개)이나 일본(0.8개)의 2.4배에 이르렀다. 부동산 중개업은 사업체수가 1.5개로 일본(0.4개)의 4.1배, 미국(0.3개)의 5.6배였다.

소매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가 12.7개로 미국(3.2개)의 3.9배였고 일본(8.9개)에 비해서도 많았다. 숙박업도 사업체수가 0.9개로 일본(0.5개)의 1.9배, 미국(0.2개)의 4.4배를 각각 나타냈다. /연합뉴스

# 韓銀 '키코 피해 中企' 지원 검토

## 오늘 금융위 회의 총액 한도대출 8조원으로 확대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방식을 통해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출 규모는 기존의 6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2조원 가량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금융위가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이번 확대하게 되면 9.11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97년 2월 3조6천억원 ▲97년 12월 4조6천억원 ▲98년 3월 5조6천억원 ▲98년 9월 7조6천억원 ▲2001년 1월 9조6천억원 ▲2001년 10월 11조6천억원(911테러) ▲2002년 10월 9조6천억원 ▲2007년 1월 8조원 ▲2007년 7월 6조5천억원 등으로 2001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었다.

금융위는 또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키코 피해기업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총액한도대출의 정확

한 증액 규모와 키코 피해기업 지원문제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한은 집행부가 아닌 금융위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중앙은행이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비상 상황을 맞아 지원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내달 LPG 가격 또 오를듯

## 수입업체 '환율상승 여파 두달 연속 인상 불가피'

다음달 국내 각 충전소에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LPG업계에 따르면 E1과 SK가스 등 LPG수입업체들은 11월 LPG공급 가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환율상승 여파로 이번 달에 이어 내달에도 LPG공급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LPG업계는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비용 등을 감안해 LPG공급가격

을 정해 각 충전소에 통보하는데,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LPG수입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달라당 원화의 월평균 환율은 9월에 1130.4원에 머물렀으나 이후 급등해 21일 현재 1287.48원으로, 환율만 따져봐도 때때 공급가격을 14% 가량 올려야 한다는 것. LPG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로 나뉘며, 이 중에서 프로판가스는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와 난방용으로, 부탄가스는 택시 등의 운송용 연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스텝스*	광주점트리클럽 (식음료, 프랜차이즈) 정규직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0/23	062-351-6052
㈜하영테크	자동차 부품 조립관련 종사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24	062-943-6508
주니비	양식조리사 경력직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0/25	062-961-7740
대성애드	정규직 현수막 제작, 시공	고졸/경력2년	1800~2000	10/25	010-2318-2606
㈜화인코리아	환경(수질관리), 생산(공무), 연구개발 정규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6	061-330-4523
한빛코리아	부동산 경매컨설팅 사무직 남/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7	010-355-3472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정보통신원 연구원	초대졸/경력2년	2200~2400	10/27	062-940-5164
㈜한국공인연이어링	비피피검사원 신입 및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28	062-369-0790
웨이인웨인	2008년 하반기 웨딩플래너 공개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29	062-224-5655
ING생명(본사)	[본사/동/고객상담원공제]저축성상품 상담원직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0/29	02-3452-2612
이케이엔터테인먼트/광주지사	[주5일 사택제공]현대상호중공업 설계보조직 남/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10/29	062-228-5437
인성학원	학원상담관리직 및 중고등 영어/수학 강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30	062-228-2772
㈜현우기공	일반사무직 여/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30	062-954-4369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경유 값 반년만에 1,500원대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값이 반년만에 1천500원대로 들어섰다.

22일 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98.85원으로 전날보다 3.06원 하락했다. 경유 평균값이 1천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4월 17일(1천594.53원)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도 1천 992원 내린 1천696.23원을 기록해 5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가격은 19일

1천699.85원으로 6개월 만에 1천600원대로 진입했다.

서울지역은 휘발유 가격이 1천 775.41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1천 79.18원 비쌌으며 경유값도 1천 638.9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천 40.14원 높았다.

석유공사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해 앞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적인 환율불안에 따라 하락폭은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곡성지사 준공 참석 흥분표 농촌공 사장  
"농어업인 권익·소득창출 위해  
인력·장비·기술 총동원 할 것"



흥분표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23일 곡성지사 신축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곡성군을 방문한다. 이번 준공된 곡성지사 신청사는 사업비 39억4천여만원을 들여 대지 5천463㎡, 연면적 1천631.93㎡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세워졌다.

지난 9월에 취임한 이후 첫 지역방문에 나선 흥 사장은 농촌공사의 사업구조상 정부 정책사업비중이 95%에 달해 농어업인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해 '경영선진화기획단'을 구성, 자립형 공사로의 도약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향후 경영선진화기획단은 조직 슬림화 등 경영효율화방안, 사업기능과 역할 재조정, 자립형 공사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에 앞장설 예정이다.

흥 사장은 최근 "농어업인의 권익과 소득증대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홀로서기를 모색하는 한편 공사의 인력·장비·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 자체 사업비중을 2013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T타입 할인제도